

천년전주의 꽃심

전주역사박물관

Unextinguished Flower Energy of Jeonju,
the Millenium Capital of Later Baekje
Jeonju Museum of History



천년전주의 꽃심
전주역사박물관

초판 1쇄 인쇄_ 2012년 12월 17일
초판 1쇄 발행_ 2012년 12월 22일

발행처_ 전주역사박물관
주 소_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싍고개로 259
전 화_ 063-228-6485~6
전 송_ 063-228-6484

펴낸곳_ 흐름출판사
주 소_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84
전 화_ 063-287-1231
팩 스_ 063-287-1232
홈페이지_ www.heureum.com
등 록_ 제2002-8호

© 2012, 전주역사박물관

ISBN 979-11-5522-024-5 94900
978-89-93003-88-8 (세트)

값 8,000원

* 이 책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천년전주의 꽃심

전주역사박물관

Unextinguished Flower Energy of Jeonju,
the Millenium Capital of Later Baekje

Jeonju Museum of History



천년도시 전주 千年都市 全州

전주는 구석기 이래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마한·백제의 땅 전주가 전북권의 중심으로 성장한 것은 통일신라 때입니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 지방을 9주 5소경으로 재편하면서 전주에 주州를 설치하여 전북 일원을 총괄하였습니다.

후삼국시대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王都였습니다. 36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전주는 한 나라의 도읍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전주목全州牧이었습니다. 고려 전기에 지방을 5도 양계로 개편하면서 전주목의 ‘전’자와 나주목의 ‘나’자를 합쳐 전라도라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본향으로 조선왕조의 발상지가 되어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전라감영이 전주에 설치되어 오늘날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통괄하게 됩니다. 전주는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으로 전라도의 수부首府:으뜸도시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라도는 유일하게 수호되어 7년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若無湖南 是無國家)”라고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전기의 4대 사고 중 전주사고본 『조선왕조실록』만이 유일하게 지켜졌습니다. 경기전의 태조어진도 수호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때는 전주에 대도소大都所가 설치되어 관민협치官民協治의 개혁을 전개했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도 전주에서 꽃피었습니다. 전주는 새로운 사상을 꽃피우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중심이었습니다. 전주사람들의 포용력은 새 사회를 열어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음식문화를 비롯하여 전주대사습놀이와 소리, 선비정신이 어린 서화書畵, 한지와 부채, 완판본과 기록문화 등 전주는 경제적 풍요와 넉넉한 전주인의 심성으로 문화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는 이러한 역사와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주 연표

구석기시대	송천동 사근리, 효자동 봉곡리, 장동 유적
삼한시대	마한 54개 소국 중 부사분사국 또는 원지국을 전주로 비정
650년(백제 의자왕 10년)	고구려 보덕화상이 전주 고덕산에 경복사 창건
685년(통일신라 신문왕 5년)	지방을 9주 5소경으로 개편, 완산주 설치
757년(경덕왕 16년)	완산주를 전주(全州)로 개명
900년(효공왕 4년)	견훤이 후백제 건국, 전주에 도읍
983년(고려 성종 2년)	지방을 12목으로 개편, 전주목 설치
현종 ~ 예종대	지방을 5도 양계로 개편, 전라도 설치
1410년(조선 태종 10년)	태조어진 전주 봉안
1439년(세종 21년)	전주사고 설치
1442년(세종 24년)	진전을 경기전으로 개칭
1473년(성종 4년)	경기전 동편에 전주사고 건립
1589년(선조 22년)	정여립 모반 사건(기축옥사)
1592년(선조 25년)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 내장산 이안 옹치전투, 이치전투, 전주성 수호
1597년(선조 30년)	왜군에게 전주성 함락됨
1614년(광해군 6년)	경기전 중건
1734년(영조 10년)	관찰사 조현명이 전주부성 개축
1767년(영조 43년)	대화제로 민가 1천여 호, 성문루 소실 남문과 서문을 복구하고 각각 풍남문, 패서문이라 함
1771년(영조 47년)	조경묘 창건
1894년(고종 31년)	동학농민혁명군 전주성 입성, 대도소 설치
1896년(건양 원년)	전라도를 전라북도과 전라남도로 분리
1899년(광무 3년)	조경단 조성
1900년(광무 4년)	오목대와 이목대에 고종 친필 비 건립
1914년	전북을 1부 14군으로 개편, 전주군 설치
1935년	전주를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분리, 전주부 설치
1949년	전주부를 전주시로 개명
1989년	구제 실시, 완산구와 덕진구 설치

차례

Contents

천년도시 전주

전주연표

선사시대에서 고려시대 전주 | 8

Jeonju from Prehistoric times to the Koryo Dynasty

구석기 이래 사람이 살아온 전주

Jeonju as a Living Place for People since the Paleolithic Age

마한 · 백제의 땅 전주

Jeonju, the Land of Mahan and Baekje

통일신라시대, '전주' 로의 개명과 전북권 중심지로 성장

Renamed Jeonju, Fast Growing to the Center of the Jeollabuk-do Region in the Unified Silla

후백제의 왕도 전주

Jeonju, the Capital of Later Baekje

고려시대, 전주목 설치와 전라도 탄생

The Establishment of Jeonjumok and the Birth of Jeollabukdo Province in Koryo

조선시대의 전주 | 25

Jeonju of the Joseon Dynasty

조선왕조의 발상지 전주

Jeonju, Birthplace of the Joseon Dynasty

전라감영이 소재했던 호남제일성 전주

The first castle of Honam, Jeollagamyoung(Jeolla provincial office) seated

정여립 모반 사건 “기축옥사”

Jeong Yeo-rip's Rebellion

임진왜란기 호남을 수호한 우국충절

Jeonju castle protected by ardent patriotic sentiment

임진왜란 때 유일하게 보존된 전주사고본 『조선왕조실록』

History guardian Jeonju-Protected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동학농민혁명, 전주화약 체결과 대도소 설치

The Revolutionary Donghak Peasants' Struggle the Armistice Agreement between the Donghak Peasant Army & the Government Troops, and the Establishment of a Headquarters Directorate in Jeonju

전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 57

The Life and Culture of People in Jeonju

전주의 비보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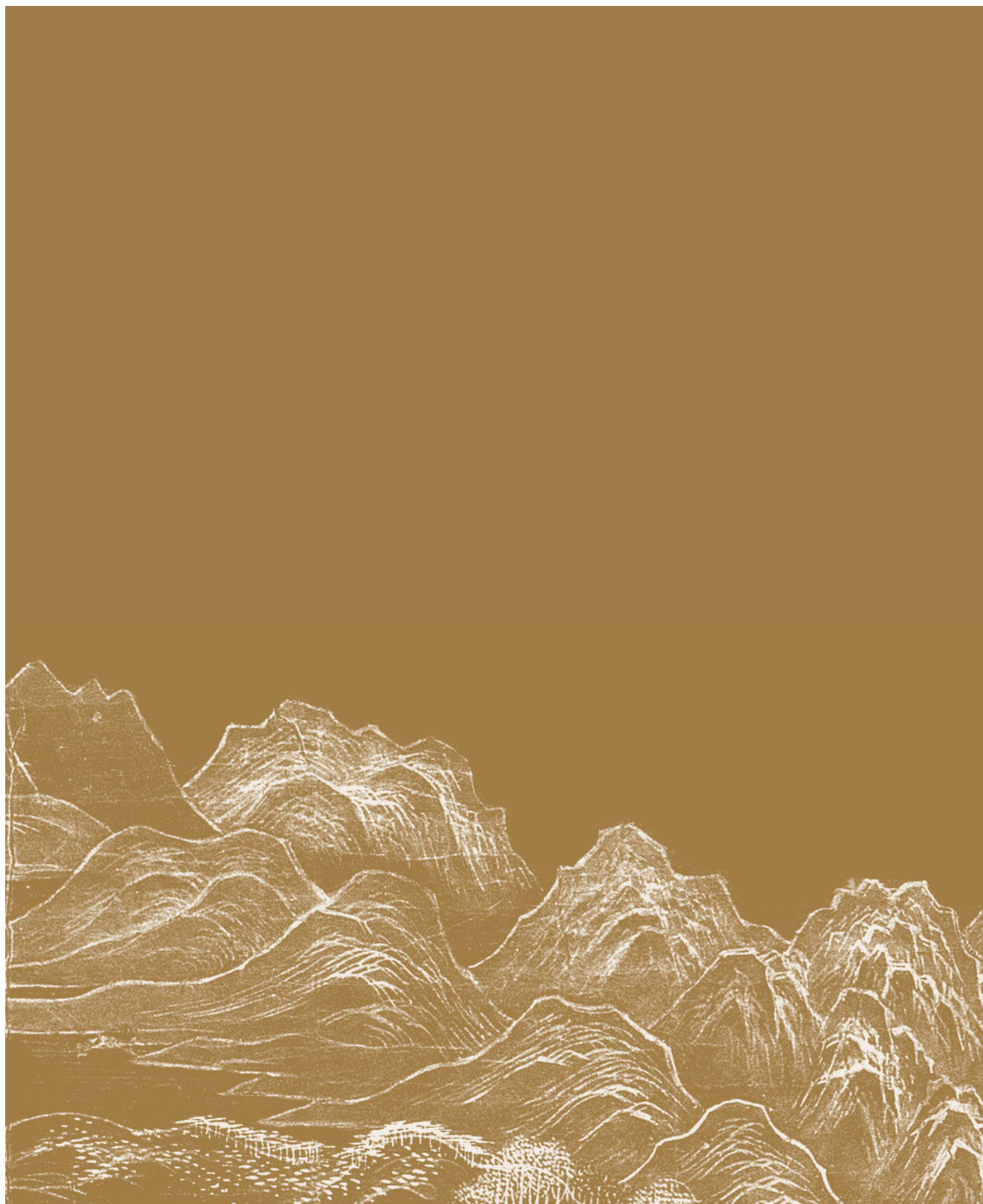
Beebo Poongsu of Jeonju

조선의 3대 도시 전주

Jeonju, a major city of Joseon

문화예술을 선도한 “예향”

A city of arts



선사시대에서 고려시대 전주

Jeonju from Prehistoric times
to the Koryo Dynasty



구석기 이래 사람이 살아온 전주

전주 지역의 구석기 유적은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2004년 송천동 사근리 유적 발견을 시작으로 효자동 봉곡리 유적, 장동 유적 등에서 찾아졌다. 이들 유적은 후기 구석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주 지역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음을 말해준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2006년 장동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전주에서 풍부하게 발견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B.C10~9세기) 유적은 성곡과 효자동에서 발견되었으며, 후기의 대표적 유적은 여의동·효자동과 완주 갈동·상운리 등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청동기시대 전주는 농경문화와 사회 계층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곳으로서, 사방의 문화가 서로 교차하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수행한 곳이었다.

Jeonju as a Living Place for People since the Paleolithic Age

Until just several years ago, Paleolithic remains had never been reported at Jeonju region. In 2004, however, Paleolithic site was discovered at sageun-li, Songcheon-dong of Jeonju. And various remains of the Bronze Age have been reported from a number of excavations including Yeoeui-dong. The fact shows that Jeonju played the role of a cross cultural bridge.



몸돌

石核 | Stone Core

전주시 송천동 | 구석기시대 | 14cm

몸돌은 석기를 만들 때 돌을 떼어 내고 남은 몸체 돌이다. 이 몸돌은 격지류(몸돌에서 떼어 낸 돌 조각)들과 함께 송천동 지표에서 채집된 것이다.



동검 거푸집

銅劍鎔范 | Dagger Mold

완주군 갈동 | 청동기 | 길이 33.1cm | 국립전주박물관

돌로 만든 세형동검 거푸집 한 쌍으로 한 점의 뒷면에는 동과(銅戈:창)틀이 새겨져 있다.

마한 · 백제의 땅 전주

마한(馬韓)은 한반도 서남 지역에 자리하였으며 54개 소국으로 구성되었다. 전북은 마한의 땅으로 10여 개의 소국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전주에는 부사분사국(夫舍分邪國)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지국(原池國)이 있었다는 설도 있다. 송천동과 완주 상운리 유적은 전주에 마한의 상당한 세력체가 존재하였음을 반증하는 유적들이다. 한강 유역에서 소국가로 출발했던 백제국은 점차 그 세력을 확대해 마한을 병합하고 강력한 고대국가로 성장하였는데, 마한이 백제(百濟)의 영역으로 편입된 시기는 대략 4세기 중엽의 근초고왕 때로 추정된다. 그러나 백제 병합 후에도 전라도에는 상당한 토착 세력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 때 전주는 완산(完山)이라고 불렸다. 백제는 사비천도 후 전국을 동·서·남·북·중 등 5방으로 나누어 관할하였다. 이때 전북 지방은 고부에 중방이 설치되고, 익산의 왕궁리에 왕궁이 건립되었으며, 금마에는 미륵사가 창건되는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마한 · 백제 때 전주는 그 중심에서 비켜서 있었다.

Jeonju, the Land of Mahan and Baekje

Mahan, one of the Samhan states, was located in the southwe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nsisted of 54 small countries. It is estimated that Busabunsaguk or Wonjiguk, one of the countries, was in Jeonju region. Jeonju was called Wansan in Baekje. At the times of Mahan and Baekje, the center of the Jeollabuk-do area was Iksan, and Jeonju stood aside from the center.



짧은 목 항아리

短頸壺 | Short-necked Jar

백제 | 높이 30.3cm



두귀달린 항아리

兩耳附壺 | Jar with Two Lugs

백제 | 높이 21.0cm



경복사 암기와

景福寺平瓦 | Roof-end Tile of Gyeongbok-temple

완주군 경복사지 | 조선 | 우측 기와 길이 17.0cm | 전북대박물관

경복사 터에서 발견된 기와 조각으로 '고덕산(高德山)', '만력(萬曆)', '경복사(景福寺)' 등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경복사는 고구려 승이면서 열반종의 시조인 보덕(普德)이 650년에 전주 고달산에 건립한 사찰이다. 고구려 보장왕이 도교를 숭상해 불교를 탄압하자 보덕이 열반종 사찰인 평양 반룡산 연복사를 옮겨 창건한 것이라고 한다. 경복사 주변에는 20여 개의 건물지가 있다.

통일신라시대, ‘전주’로의 개명과 전북권 중심지로 성장

완산주完山州 설치

전주는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전북권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마한·백제 때 중심지는 익산이었다. 신라는 통일 후 685년(신문왕 5) 전국을 9주州 5소경小京체제로 개편하였는데, 이때 전주 지역에 완산주가 설치되어 전북 일원을 총괄하게 되었다. 전남권에는 무진주(광주)에 주州가 설치되었으며, 남원에는 소경을 두었다.

완산에서 전주로 개명

전주全州라는 지명 또한 통일신라 때에 등장하였다. 전주의 옛 지명은 완산完山이었다. 완산은 완산칠봉에서 유래한 것으로, 757년(경덕왕 16)에 한자식으로 군현명이 바뀌면서 전주로 개명되었다.

Renamed Jeonju, Fast Growing to the Center of the Jeollabuk-do Region in the Unified Silla

Jeonju developed fast to the center of the Jeollabuk-do region in the unified Silla. In 685, the nine Ju system was inaugurated, five of secondary capitals were designated after the unification. At the time Wansanju became a provincial capital of the Jeollabuk-do region. In 757, Wansanju changed the name Jeonju as the government followed a policy of increased Sinicization. Indeed, the old name of Jeonju was Wansan.



토기유개합

土器有蓋盒 | Lidded Bowl, Earthenware

전주시 만성동 | 통일신라 | 높이 9.6cm | 국립전주박물관

후백제의 왕도 전주

892년 무진주(靑州)에서 일어난 견훤은 900년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백제'라는 국호와 백제왕을 칭하고, '정개(正開)'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국가 수립을 대외에 선포하였다.

옛 백제 땅에서 세력을 키운 견훤은, 중국의 오월 및 일본과의 외교를 확장하는 한편 927년에는 신라 수도 경주를 침공하여 경애왕을 제거하고 경순왕을 세웠으며, 고려와의 전투에서 연승하는 등 10세기 초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930년 고창(안동)전투에서 고려에 패한 이후 급격한 전력의 상실과 왕실 내부의 갈등이 후백제의 중심 세력 간의 권력 쟁탈과 맞물리면서, 백제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열망은 사라지게 되었다. 패자 견훤은 승자 고려에 의해 악인(惡人)으로 폄하되었고, 전주는 견훤의 땅이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Jeonju, the Capital of Later Baekje

Gyeonhwon built a new capital at Jeonju. He named his state Baekje, and himself the king of Baekje. He adopted his era name Jeonggae. Thus he proclaime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 publicly. He built up his influence at the old land of Baekje, and developed relations with Owol of southern China and Japan, while he won battle after battle with Koryo. Then Baekje emerged as the strongest nation in the early 10th century. But the political disturbance began with success disputes, and expanded to confine even Gyeonhwon to Geumsansa temple, and finally Later Baekje to the end in 936.

후백제왕 견훤

“내가 목적하는 바는 평양의 누각에 활을 걸어놓고 말에게 대동강의 물을 먹이는 것이다”

— 견훤 —

『삼국사기』에 의하면 후백제왕 견훤(甄萱, 867~936)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상주 가은현(현 문경시 가은읍 아차마을)에서 태어났으며, 본래는 이씨였는데 후에 견씨로 바꾸었다고 한다. 견훤은 서남해 지역을 지키는 신라의 장수로 있다가, 892년 사졸들을 데리고 독자 세력을 구축하여 무진주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 26세였다.

927년 대구 공산전투에서 고려 태조 왕건을 사로잡을 뻔할 정도로 막강했던 견훤의 후백제는 930년 고창(안동)전투 패전 이래 내리막길을 걷다가 936년 황산전투를 끝으로 삼국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하였다. 후백제는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벌어진 혼란을 이기지 못하고 견훤이 금산사에 유배되는 등 수난을 겪었다.

견훤성

동고산성(東固山城)이라 불리는 견훤고성(甄萱古城, 도기념물 44호)은 승암산에 위치하고 있다. 306m의 주 봉우리인 발계봉을 중심으로 산 능선을 따라 동·남·북벽을 쌓고 서북편으로는 전주 시내로 흐르는 계곡을 감싼 포곡식 산성이며, 남·북에 돌출된 대지를 포용한 익성이 있어 두 날개를 단 독수리와 같은 형세를 보이고 있다. 성 규모는 둘레 1,588m, 동서 314m, 남북 256m이다.

성내에서 가장 큰 건물은 성황사 위편에 자리하고 있는데, 동쪽으로 산을 등지고 서향하여 전주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건물은 길이 84.2m, 측면 14.1m의 대규모 단일 건물로 남북으로 긴 누각 형태이다. 여기에서 ‘전주성(全州城)’이란 글씨가 새겨진 연화문, 봉황문, 무사문 와당 등이 출토되었다.

후삼국시대, 최대의 서적 보유 도시 전주

“당나라 이적이 고구려를 평정하고는 동방의 모든 서적을 평양에다가 모아놓고 우리나라의 문물이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것을 시기하여 모두 불태워버렸으며, 신라 말엽에 견훤이 완산을 점령하고는 삼국의 모든 서적을 실어다 놓았는데, 그가 패망하게 되자 모두 불타 재가 되었으니, 이것이 3천 년 동안 두 번의 큰 재앙일세.”

이덕무가 쓴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전주는 후삼국시대 우리나라 최대의 서적을 보관했던 최대의 지식 문화도시였다.



견훤고성(동고산성) 성벽 복문지

甄萱古城 城壁 | The Walls of Gyeonghwon Fortress (Donggosanseong)



견훤고성(상성) 전경

甄萱古城(上城) 全景 | A Panorama of Gyeonghwon Fortress

후백제 전주도성, 즉 견훤성은 상성, 중성, 하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성은 승암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고산성이라고 불리고 있다. 위 사진은 상성을 표기한 것이다. 가운데 건물은 성황사이고, 그 위에 나무가 없는 큰 터가 성내에서 가장 큰 건물이 있던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었다. 후백제 전주성 하성은 현재 동초등학교 서편까지 이어진다.



‘전주성’ 글자가 새겨진 기와

全州城銘文瓦 | Tiles engraved with the word 'Jeonju Fortress'

전주동고산성 | 후백제 | 암막새 길이 29cm, 수막새 지름 15.8cm | 국립전주박물관

전주 건훤성에서 출토된 쌍봉왕무늬 암막새, 쌍무사무늬 암막새, 연화문 수막새 등이다. 기와 가운데에 ‘전주성’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고려시대, 전주목 설치와 전라도 탄생

고려는 후삼국 통일 후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성종 대 12목체제로 개편하였다. 전라도에는 전주목全州牧과 나주목羅州牧이 설치되었다. 이후 고려 지방제가 5도 양계체제로 개편되면서, 전주권과 나주권이 합쳐져 전라도全羅道가 되었다. '전라도'라는 지명은 전주에서 '전' 자, 나주에서 '나' 자를 따와 합친 명칭이다.

고려시대의 '도道'는 영역만 설정된 것으로 5~6품의 직급이 낮은 안찰사가 일도를 순력할 뿐, 조선시대의 종2품의 대신급 관찰사(감사) 같은 존재가 있어서 일도를 통괄하는 체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도를 관찰사가 총괄하는 감영제는 고려 말에 설치되어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The Establishment of Jeonjumok and the Birth of Jeollabukdo Province in Koryo

The new Koryo local administration system began to take shape after the unification of Later Three Kingdoms and 12 mok system was completed under King Seonjong. There were Jeonjumok and Najumok in Jeolla province. Early in the 11th century afterwards, the number of the primary administrative division for the country was set at five, and two border districts were established, then Jeolla province came into being with the annexation of Jeonjumok and Najumok regions. In fact, the letter 'Jeon' of 'Jeonju' and the letter 'Na' of 'Naju' were combined to create the name 'Jeollado'.

이규보의 「남행월일기」에 기록된 전주 모습

전주全州는 완산完山이라고도 일컫는데 옛날 백제國百濟國이다.
인물이 번창하고 가옥이 즐비하여 고국풍故國風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질박하지 않고 아전들은 모두 점잖은 사인士人과 같아,
행동거지의 신중함이 불만하였다.
중자산中子山이란 산이 가장 울창하니, 그 고을에서는 제일 큰 진산鎭山이었다.
소위 완산完山이란 산은 나지막한 한 봉우리에 불과할 뿐인데,
한 고을이 이로써 부르게 된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夫全州者 或稱完山 古百濟國也 人物繁浩 屋相櫛比 有故國之風 故其民不樵朴 吏皆若衣冠士人 進止詳審可觀 有中子山者 最蓊鬱 州之雄鎮也 其所謂完山者 特一短峯耳 異哉 一州之以此得號也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23, 「기(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

**이규보(1168~1241)는 1199년(고려 신종2) 전주목사록겸장서기全州牧司錄兼掌書記로 부임해 와 2년간 머물렀다. 이때 전주를 비롯해 여러 곳을 다니며 보고 느낀 것을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라 하여 기록해 놓았다.

훈요십조訓要十條 위작설

태조가 내렸다는 훈요십조에 차령 이남은 풍수적으로 반역의 기운이 있으니 이 지역 사람들을 중앙에 등용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호남 출신 인재들의 중앙 진출이 억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태조의 뒤를 이은 혜종이 나주 오씨 장화왕후 소생이고, 태조 때 전라도 출신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등 훈요십조 내용이 건국 초의 상황에 맞지 않으며, 또 지금 전해지는 훈요십조가 훗날 최항의 집에서 찾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개작 내지 조작설이 일찍부터 제기되고 있다.



충익공 만육 최선생 신도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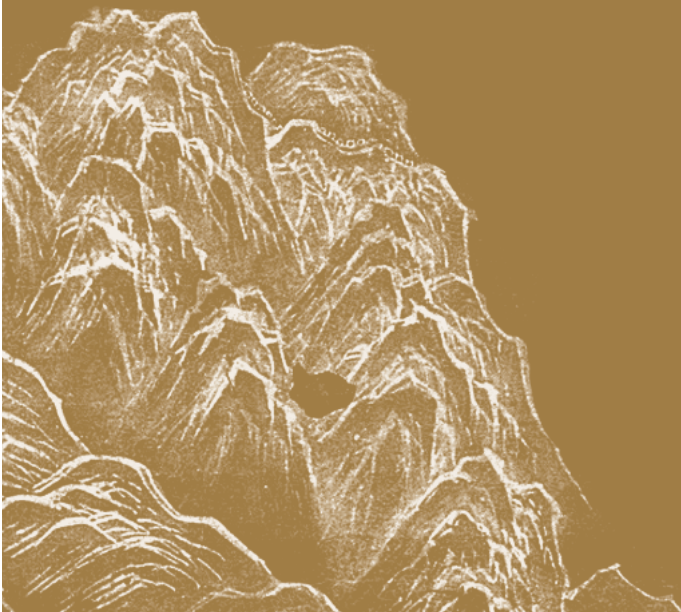
忠翼公晩六崔先生神道碑文 | The Rubbed Copy of the Scholar Chungikgong Manyuk Sindobi

1852년(철종3) | 30.9×21.1cm

고려 수절신 최양의 신도비 탁본첩이다. 이조판서 서준보(徐俊輔)가 비문을 짓고, 전라감사 이유헌(李裕元)이 글씨를 써서 1852년 비문을 새겼다. 최양(崔瀼, 1351~1424)은 고려 말 충절을 지켰던 두문동 72현 중 한 명이다. 전주 최씨로 호는 만육(晩六)이며, 정몽주의 생질이다. 대제학, 문학찬성사를 지냈으며, 고려가 멸망하자 전주 소양면 대승동에 은거하였다. 그가 은거했던 것에 연유하여 소양면(所陽面)을 '소왕면(小王面)'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전주

Jeonju of the Joseon Dynasty



조선왕조의 발상지 전주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다. 태조의 고조부 목조 이안사가 동북면으로 이주해 갈 때까지 선조들이 대대로 전주에 살았다. 전주는 조선 건국과 함께 조선왕조의 발상지로 서 풍패지향(豐沛之鄉)이 되어 위상이 격상되었다. 풍패지향이란 건국자의 본향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조선은 건국 후 전주에 태조어진을 봉안하고 경기전(慶基殿)이라고 이름하여, 전주가 왕실의 뿌리임을 분명히 하였다. 전주 이씨 시조 이한(李翰)의 위패를 모신 조경묘(肇慶廟)와 시조 묘소 조경단(肇慶壇), 태조가 황산대첩 후 들렀던 오목대(梧木臺), 목조가 살았던 이목대(梨木臺) 등도 풍패지향과 관련해 조성되었다. 객사를 풍패지관(豐沛之館)이라고 하고, 남문을 풍남문(豐南門)이라고 한 것도 풍패지향에서 연유한 것이다.

Jeonju, Birthplace of the Joseon Dynasty

Jeonju was the original birthplace of Taejo Lee, Seong-gye, the first king of the dynasty.

His ancestors had lived in Jeonju for generations before his great grandfather, Mokjo Lee, Ahn-sa, moved to the North East. As the native birthplace of the Joseon dynasty by founding Joseon, Jeonju had its status raised to Poonpaejihyang(the native place of the dynasty). The government enshrined the portrait of the first King of the Joseon(Lee, Seong-gye) in Jeonju after having founded the dynasty and named the place Gyeonggijeon to cement the fact that Jeonju was the originating root of the Royal family.

태조어진

太祖御眞

The Portrait of King Taejo

1872년(고종9) | 220×151cm

국보 317호 | 여진박물관(경기전)

현존하는 유일한 태조어진이다.

永祖九五御容
小字胡峒之元
景王中书府撰



태조어진과 경기전

1410년(태종10) 전주가 조선왕실의 관향이라고 하여 경기전을 건립하고 태조어진(왕의 초상)을 봉안하였다. 경기전 태조어진은 전주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임진왜란 중 보존되었다. 1872년(고종9) 경기전 어진 구분이 오래되어 세초매안(洗草埋安)하고, 새로 모사하여 봉안하였다. 태조어진은 2012년 국보 317호로 승격되었다. 경기전은 1410년 태조어진을 전주에 봉안하면서 건립된 진전으로, 정유재란 때 왜군에게 전주성이 점령되면서 소실되어 1614년(광해군6)에 중건하였다.



경기전 정전

慶基殿正殿 | Main Hall, Gyeonggijeon

보물 157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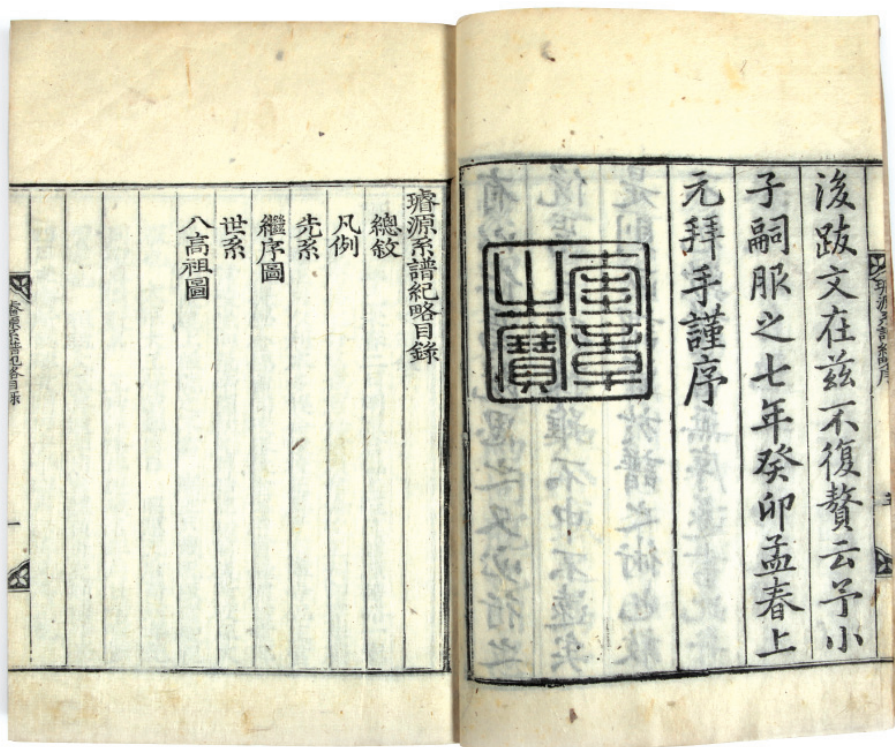


운용문 암막새

雲龍文平瓦當 | A Roof-end Tile with Patterns of Dragon and Clouds

조선 말 | 25×30cm | 전주대학교박물관

경기전 서쪽 부속 건물지에서 출토된 운용 문양의 암막새 기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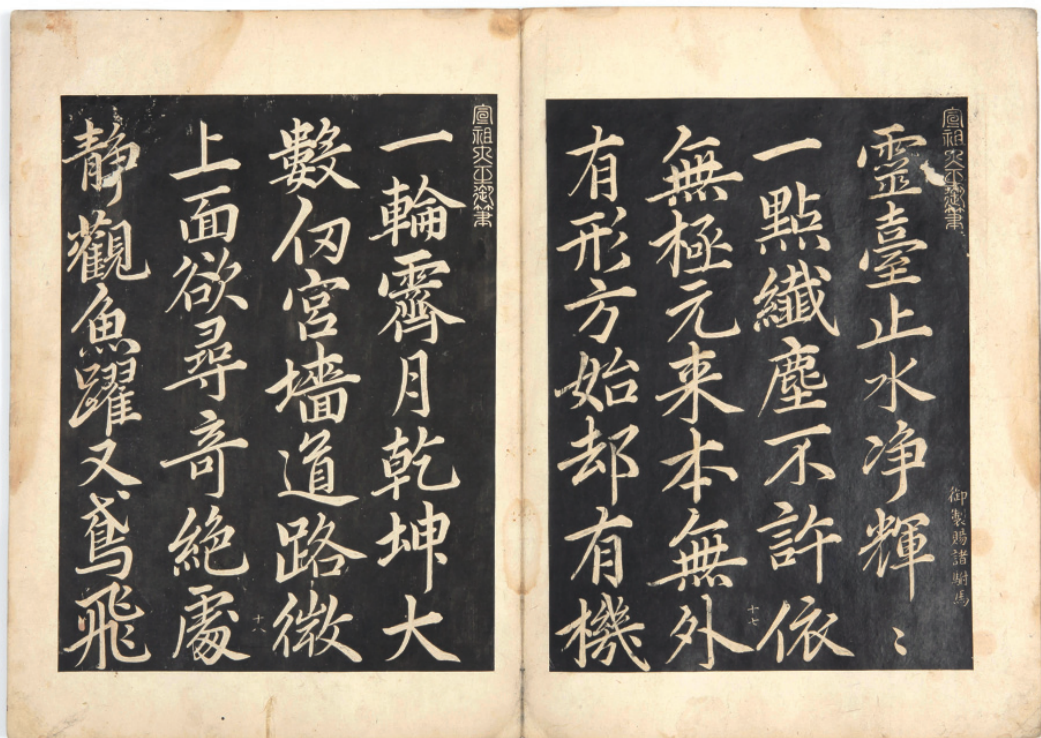


선원계보기략

璿源系譜記略 | Geneology of the Royal Family of the Joseon Dynasty

1905년(광무9) | 목판본 | 22.3×33cm

『선원계보기략』 중간본이다. 조선시대 왕실의 족보로서 시조 이한(李韓)으로부터 추존왕 목조 이전까지의 계보인 선원선계(璿源先系)와 목조에서 편찬 당시의 왕계까지 계보인 선원세계(璿源世系)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열성어필

列聖御筆 | Album of calligraphy by Successive Kings of the Joseon Dynasty

조선 후기 | 41×29cm

역대 임금의 글씨를 모아놓은 책이다. 위 글씨는 명필로 일컬어지는 선조 임금의 글씨이다.



완문

完文 | An Wanmun, Certification of the Government

1862년(철종3) | 34×554cm

1862년 종친부에서 발간한 장문의 완문으로 전라도 낙안군에 사는 이종호, 이종현 등의 가문은 왕실의 후예이니 제반 환상(還上)과 연호 잡역 등을 모두 면제시키라는 내용이다. 첩 형태로 되어 있는 완문을 펼치면 길이가 5m가 넘는다.

전라감영이 소재했던 호남제일성 전주

전라감영全羅監營

전주는 전라도를 총괄하는 전라감영이 있던 호남의 수부首府였다. 전라감영에는 종2품의 감사가 임용되었으며 그 예하에 종5품의 판관과 도사가 있었다. 전주부영에는 감사와 같은 종2품의 부윤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전라감사가 전주부윤을 겸하는 체제가 정착되면서 판관이 실질적인 전주부윤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주부성全州府城

전주부성은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성으로 총면적이 18만 평이나 되었다. 객사가 중심에 위치하고 그 앞쪽으로 서편에 전라감영(1만2천 평), 동편에 전주부영(7천 평)이 자리했다. 1734년(영조10) 감사 조현명이 전주성을 개축하고 4대문을 다시 쌓았으며, 영조 43년에 큰불이 나 감사 홍낙인이 남문과 서문을 다시 쌓고 각각 풍남문豐南門, 패서문沛西門이라고 하였다.

The first castle of Honam, Jeollagamyong(Jeolla provincial office) seated

Jeonju was the capital of Honam and was the seat of Jeollagamyong which supervised over all of the Jeolla province. A Gamsa(the head of the Jeollagamyong)of the junior grade of the second rank was appointed in Jeollagamyong and there were Pankwan(a judge) and Dosa(an administrative official) who were of the junior grade of the fifth rank below Gamsa.

Booyoon(the head of the Jeonjubooyoung) of the junior grade of the second rank was appointed in Jeonjubooyoung.

Jeonju castle was the largest of its kind south of Han river. The gross of its area was a staggering 180,000 square me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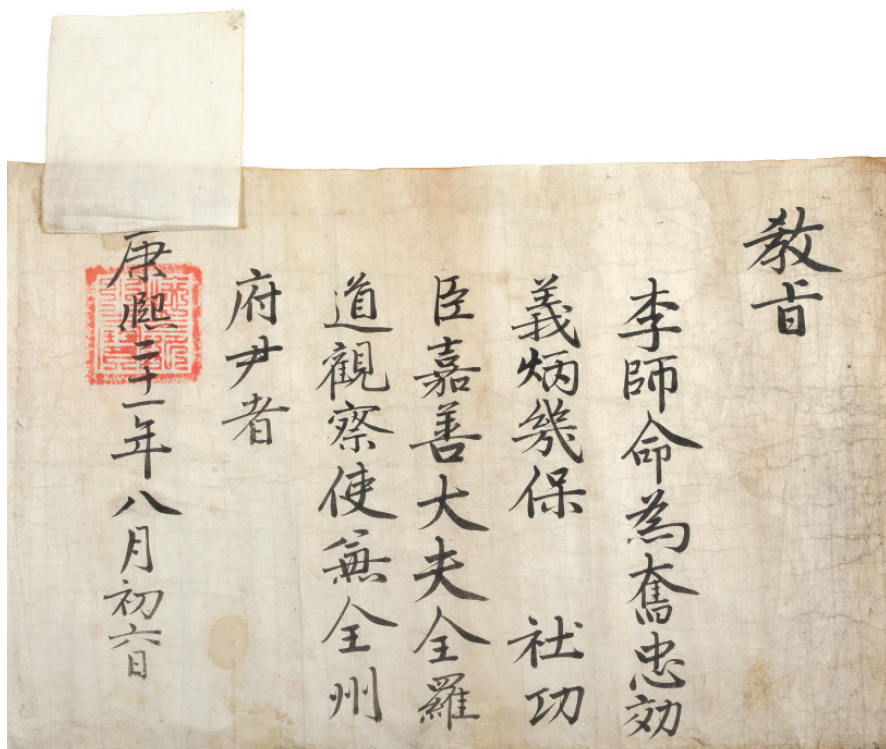
Gaeksa was located in the center of Jeonju castle and Jeollagamyong(12,000 square meters) was situated in the west forward. Jeonjubooyoung(7,000 square meters) was situated in the east. Gamsa Jo, Hyun-myeong rebuilt Jeonju castle and its 4 gates in the 10th year of King Youngjo's reign in 1734.



전라감영 선화당

全羅監營 宣化堂 | Seonhwadang in Jeolla Gamyong, the Office of the Provincial Governor

전라감영은 구도청 자리에 있었다. 선화당은 전라감사 김무실로 조선 멸망 후 도청 건물로 사용되다가 1951년 한국전쟁 때 전소되었다. 선화당 규모는 정면 7칸, 건평 78평으로 전주에서 객사(풍패지관) 다음으로 큰 건물이었다.



전라감사 임용장

全羅監司任用狀 | A Royal Writ of the Appointment to the Governor of the Jeolla Province

1682년(숙종8) | 48.5×74cm

1682년 국왕이 이사명(1647~1689)을 전라도 관찰사 겸 전주부윤으로 임명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이사명은 숙종 8년에서 11년까지 전라감사로 재임하였다. 그는 본관이 전주이며, 1680년 춘당대문과에 장원급제했다. 서인으로 형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남인이 정권을 잡은 기사환국 때 죽임을 당하였다.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세평이 있었으며, 문장과 시제가 뛰어난 석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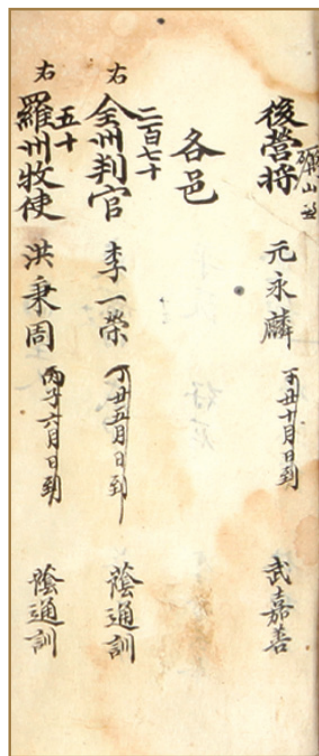


전라감사와 육방, 통인들

全羅監司 六房 通人 | A Governor of Jeolla Province with his Petty Functionaries of Six Chambers

국사편찬위원회

조선 말에 전라감영에서 촬영한 것이다. 가운데가 전라감사, 그 양옆으로 갓을 쓰고 있는 자들이 육방, 그 뒤에 있는 자들이 통인이다.



도내관안

道內官案 | A Register of the Various Kinds of Officials in Jeolla Province

1818년(순조18) | 필사본 | 19.9×308.6cm

전라도내 도사, 중군, 병사, 좌·우수사, 영장, 각 군현 수령 등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후면에는 아전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첩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를 펼치면 3m가 넘는다.



전라감영 주조 상평통보

全羅監營鑄造 常平通寶 | Coins Casted at the Jeolla Provincial Government

조선 후기 | 지름 3.5cm | 계명대박물관

조선 후기 전라감영에서 주조한 상평통보를 비롯한 동전들이다.



전주부성 축성록(축성계초)

全州府城築城錄(築城啓草) | Fortification Record of Jeonju Castle

1734년(영조10) | 32×27cm | 풍양조씨자효회

1734년 전라감사 조현명이 전주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면서 기록해 놓은 일지이다. 전주부성 수축 시의 상세한 공사 내역은 물론 당시 사회경제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표제가 다른 책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간 첫 페이지에 나오는 '축성계초'로 이름하여 알려졌다.



전주부성도

全州府城圖 | Map of Jeonju in Joseon Dynasty

529×170cm

완산십곡병풍도(국립전주박물관 소장)의 전주부성 부분이다. 완산십곡병풍도는 19세기에 제작된 병풍형 지도다.



풍남문

豐南門 | Pungnammun Gate

보물 308호

전주부성의 정문인 남문이다. 성 밖 쪽으로는 '풍남문' 편액이 걸려 있고, 성 안쪽으로는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 편액이 걸려 있다. 1734년(영조10) 전라감사 조현명이 전주성을 새로 쌓으면서 남문을 명견루(明見樓)라고 하였는데 1767년(영조43) 전주 대화제로 소실되어 그해 전라감사 홍낙인이 다시 남문을 건립하였으며 이때 남문 이름을 '풍패(豐沛)'에서 '풍' 자를 따와 풍남문이라고 하였다. 호남제일성 편액은 전주가 전라감영이 위치한 호남의 으뜸 도시라는 의미이다. '풍남문' 편액은 전라감사 이서구, 명필 창암 이삼만 등의 글씨로 전해지나 분명치 않으며, '호남제일성' 편액은 1842년(헌종 8) 전라감사로 부임한 서기순이 쓴 것이다.



전주부성

全州府城 | Jeonju Fortress

1899년경 전주부성 전경 사진이다. 백색의 성벽을 따라 중앙에 풍남문이 있고, 좌우로 서문과 동문이 보인다. 전주성은 일제에 의해 1910년 전후 풍남문만 남겨놓고 철거되었다.



정여립 모반사건 “기축옥사”

기축옥사己丑獄死는 정여립鄭汝立이 선조의 미움을 받아 고향 전주로 낙향한 후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여서 임진왜란 발발 3년 전 1589년(선조22) 모반을 도모하였다는 옥사를 말한다. 이 사건은 3년여에 걸쳐 동인 1,000여 명을 희생시킨 동서분당 후 최대의 사건이다. 많은 호남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전라도는 반역향이 되어 지역 인재들의 중앙 진출이 억제되었다.

정여립 모반사건은 실재했던 것이 아니라 정철을 비롯한 서인들이 동인을 타도하기 위해 꾸며낸 당쟁의 산물이라는 날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정여립 모반사건은 실재설과 날조설이 맞서 있다.

Jeong Yeo-rip's Rebellion

It is said that the rebellion, Geechookoksa(deaths in the year of the Geechook), was planned 3 years before the Imjinwaeran(Japan's Invasion in the year of Imjin). The rebellion took place 22 years into King Seonjo's reign(1589). It was then that Jeong Yeo-rip returned to his hometown of Jeonju as a result of King Seonjo's hatred of him. It was at this time that he first organized the Daedonggye movement.

This rebellion was one of the biggest catastrophes after the government split up into eastern and western parties. Over 1,000 people lost their lives over a 3 year period.

Many people from Honam(Jeolla province) were sacrificed. The local people were prevented from having any governmental ties and roles because of the rebellion.

Even to this day there are many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rebellion. For example, some believe it definitely occurred(real presence theory), while others believe it was a fabrication(invention theory).



진안 죽도

鎮安竹島 | Jukdo, Jinan

진안 천반산 자락 죽도는 물이 산자락을 휘돌아 육지의 섬과 같은 형세이다. 죽도는 정여립이 낙향하여 서실을 지어놓고 대동계를 조직하여 시름을 달랬던 곳이자 그가 역모로 몰려 진안현감 민인백이 잡으러 왔을 때 죽음을 맞이한 곳이다. 그의 죽음이 자결인지 타살인지는 분명치 않다. 모반이 실재했다고 보는 경우는 자살로 단정하고 날조되었다는 시각에서는 타살로 보고 있다.

임진왜란기 호남을 수호한 우국충절

충무공 이순신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若無湖南 是無國家)'고 하였으며, 호남의 의병장 안방준은 '호남의 보존은 의병의 봉기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하였다.

1592년 왜군은 부산에 상륙한 지 20여 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였다. 조선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전라도는 사정이 달랐다. 김제군수 정담, 나주관관 이복남, 함열 출신 의병장 황박 등이 웅치에서 적을 막았으며, 광주목사 권율, 동북현감 황진 등은 이치에서 적을 막았다. 전주성은 의병장 이정란이 부민들과 함께 지켜 수호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전주성이 왜군에게 점령되지만, 왜란 초 전주성과 호남 수호는 7년전 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반이 되었다.

Jeonju castle protected by ardent patriotic sentiment

Japanese pirates overwhelmed Hanyang in only 20 days after they landed in Pusan in 1592. The Joseon government was helpless. However before the invaders reached Jeonju, they were defeated at Woongchi and Yichi which were the routes into Jeonju and it's protective castle. Jeonju castle eventually was occupied by Japanese pirates during the Jeongyujaeran(Japan's second Invasion in the year of Jeongyu) of 1597, the initial defense of the castle and Jeollado though was so heroic that it became symbolic of the fighting spirit that led to the eventual victory in the seven-year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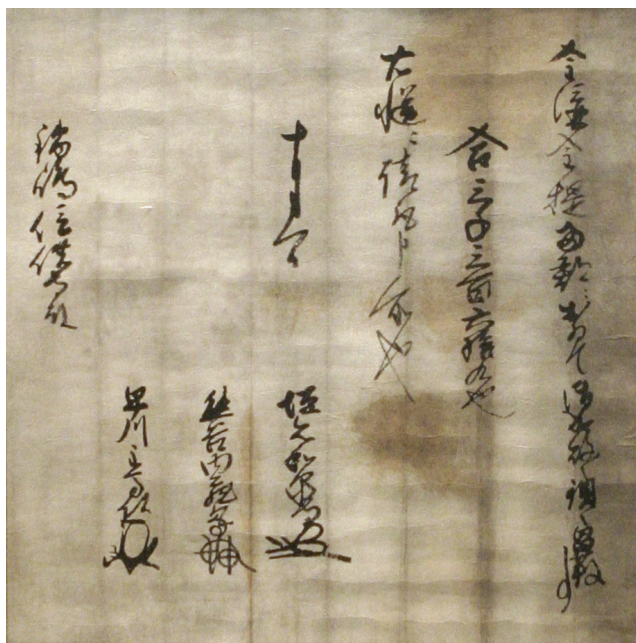


호남절의록

湖南節義錄 | Record of Honorable Martyrs of the Honam District at the National Cris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1799년(정조23) | 목판본 5책 | 21×31.5cm

임진왜란(1592), 이괄의 난(1624),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 이인좌의 난(1728)이 일어났을 때 활약한 호남 지방 의병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코 영수증

鼻請取狀 | Receipt of 3,369 Noses Cut off from Korean Soldiers by the Japanese

1597년(선조30) | 90×45cm | 국립진주박물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군을 죽인 증거로 귀와 코를 절단하여 갔다. 1597년 10월 1일 발행된 이 문서는 일본의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에게 보내진 전라도 금구, 김제 지방에서 절취한 3,369개의 코에 대한 영수증이다. 코는 술통에 넣어져 일본으로 보내져 실제 검사하도록 바쳐졌다고 한다. 이 문서는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복제한 것이다.

임진왜란 때 유일하게 보존된 전주사고본 『조선왕조실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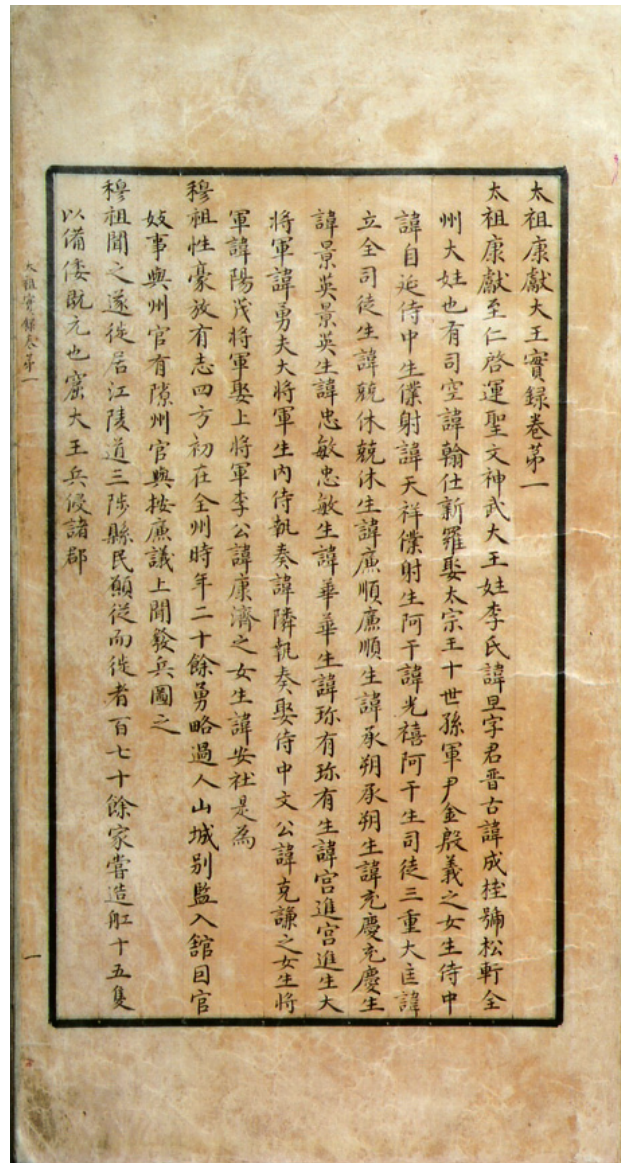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사회의 제반 모습이 총망라되어 있는 방대한 역사서로 1973년 국보 15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조선은 건국 후 서울 춘추관을 비롯해 충주, 성주, 전주 등 4대 사고에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국가 중요 전적을 보관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본만 보존되고 모두 불타버렸다.

전주사고본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경기전 참봉 오희길, 태인의 선비 손홍록·안의 등이 협력하여 실록과 태조어진을 내장산으로 옮기고 1년여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전주사고본 실록은 전쟁이 끝난 후 강화도 정족산사고에 봉안되고 전주사고는 철폐되었다. 현재 전주사고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History guardian Jeonju-Protected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are huge historical books which consist of 888 volumes containing of the various affairs of Joseon dynasty, were registered in 1997 by UNESCO, under its ‘Memory of the World’ scheme. During the war, they were being preserved in four places, these included; Choongju, Seongju and Jeonju including Choonchoo office. All of these were burned to ashes, except those that were being stored in Jeonju. The reason why the Jeonju documents managed to survive is because they had been moved to Mt. Naejang. There they were kept for a year by the righteous men of virtue; Son, Hong-rok, Ahn, Ui and Oh, Hee-geel.



태조실록(전주사고본)

太祖實錄(全州史庫本) | The Annals of King Taejo in the Joseon Dynasty (The Jeonju History Archive)

1445년(세종27) | 필사본 13책 | 54.1×31.5cm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국보 151호 | 세계기록문화유산

태조실록은 1413년(태종13) 처음 편찬되었으며, 세종 대에 개수되었다.



조선왕조실록(전주사고본 복본)

朝鮮王朝實錄(復本) | The Annals of Joseon Dynasty(Replica)

전주시와 문화관광부 주관하에 2007년 실록복본화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 전주사고본 실록(태조~명종 대) 614책 복본을 완료하였다.



전주사고

全州史庫 | The Jeonju History Archive

전주사고는 1439년(세종21)에 설치되었으며, 실록을 봉안하기 시작한 것은 1445년부터이다. 처음에는 실록각이 건립되지 않아서 승의사(僧義寺), 진남루 등에 실록을 보관하였다가 1473년(성종4) 경기전 동편에 실록각을 건립하고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국가 중요 문헌을 보관하였다.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에 봉안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만 유일하게 보존되었다.



무주 적상산사고

茂朱 赤裳山史庫 | The History Archive of Mt. Jeoksang, Muju

일제강점기 | 9.1×14.1cm

일제강점기에 나온 우편엽서로 우측이 실록각이고, 좌측이 선원각이다. 실록각에 '석실비장(石室秘藏)' 편액이 선명하다. 이 편액은 현재 안국사 청하루에 걸려 있고, 선원각은 안국사 천불전으로 남아 있다. 적상산사고는 『조선고적도보』에도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이 엽서는 실록각과 선원각이 선명하게 같이 나온 유일한 사진이다. 1991년 전주사고를 복원할 때 적상산사고 실록각을 표본으로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전주화약 체결과 대도소 설치

1894년 고부에서 시작된 농민 봉기는 그해 3월 20일 무장기포를 기점으로 전국적 농민혁명으로 확대되었다. 농민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백산으로 이동하여 8천여 명의 농민군이 참여한 가운데 3월 25일 전봉준을 총대장, 손화중·김개남을 총관령總管領으로 편제를 갖추고 격문을 발하였다.

백산에 집결한 8천여 명의 농민군은 남하하여 정읍 황토현과 장성 황룡촌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전라도 일원을 석권한 농민군은 북상하여 마침내 4월 27일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그 이튿날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京軍이 전주에 도착해 완산에 진을 쳤다. 농민군과 관군은 완산전투를 비롯해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청군과 일본군이 출병하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함에 따라 민족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농민군 총대장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은 7월 6일 농민군 철수와 폐정개혁을 조건으로 전주화약全州和約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각 군현에 농민군이 주도하는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고, 전주에 이를 총괄하는 대도소大都所를 설치하여 관과 민이 협력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폐정을 단행하는 관민협치官民協治가 이루어졌다.

The Revoloutionary Donghak Peasants' Struggle the Armistice Agreement between the Donghak Peasant Army & the Government Troops, and the Establishment of a Headquarters Directorate in Jeonju

In 1894, the Donghak peasant army rose up to protest against the corrupt officials, soon occupied Jeonju, and proceeded to fight intensely with the government troops. As the occupation of Gyeongbok Palace by the Japanese army escalated the national crisis, Jeon Bongjun, a commander-in-chief of the peasant army, met in Jeonju with Kim hakjin, a governor of Jeolla province, and agreed to end hostilities. In the fifty-three counties of Jeolla province, so-called Local Directorates (Jipgangso) were established, and in the provincial capital at Jeonju a Headquarters Directorate (Daedoso) was established. Thus the officials and the peasants cooperated with each other to maintain public order and to carry out reform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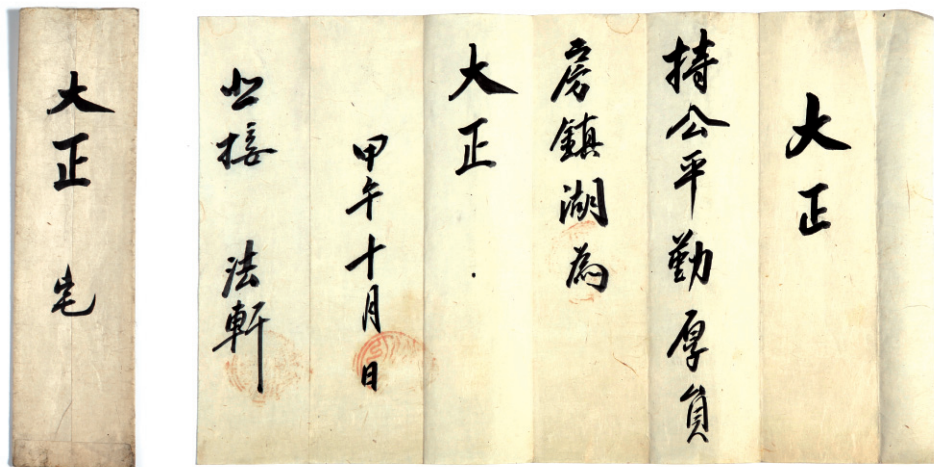


사발통문

沙鉢通文 | Sabaltongmun, a round robin

1893년(고종30) | 30×42.5cm | 복제

사발통문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혁명을 결의한 문서이다. 1893년 11월 전봉준, 송두호, 송대화, 송국섭, 최경선, 김도상, 손여옥 등 20명은 송두호의 집에 모여 고부군수 조병갑을 효수하고 전주성을 거쳐 서울로 바로 쳐들어가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누가 주도자인지 모르게 사발을 엮어 놓고 돌아가며 서명을 하고 믿을 수 있는 동지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이 때문에 사발통문이라 불린다.



대정 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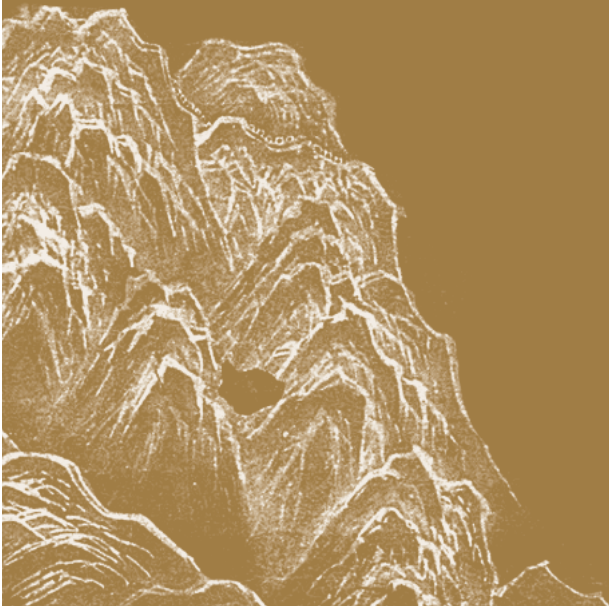
大正任命狀 | The appointment certificate of Daejeong

1894년(고종31) | 24×40cm

접주 최시형이 동학의 포(包)를 이루는 6임제 행정기구 중 하나인 대정(大正)에 방진호를 임명한 임명장이다.

전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The Life and Culture
of People in Jeonju



전주의 비보풍수

온고을 전주는 노령산맥에서 뻗어 내린 기린봉, 승암산, 고덕산, 모악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사람 살기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다. 그런데 서북쪽이 열려 있어서, 이를 비보(裨補)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건지산과 가련산을 이은 덕진제방,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한 숲정이, 북쪽을 누른다는 뜻을 지닌 진북사(鎭北寺) 등이 그것이다.

조선의 지리서들에는 주산이 건지산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는 기린봉이 주산이라는 설이 있다. 기린봉이야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주산으로서 품격을 갖추고 있으며, 건지산은 주산으로서는 너무 약한데, 기린봉에 왕의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이 기를 누르기 위해 조선왕조는 일부러 주산을 건지산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Beebo Poongsu of Jeonju

Ongoeul Jeonju, has a great natural habitat for people who live in the area. It is formed like a basin as it is surrounded by the four peaks of Kirinbong, Seoung-am, Goduck and Moak. These mountains stretch out across the No-Ryong mountain range. The north western area outside of the city is open and spirits leak out, so it has been fortified by the creation of the Dukjin dike(which joins Mt. Geonji to Mt. Gareon), and the Supjeongee (a woodland that was planted by hand). The temple of Jinpuksa is also in the area, and it stands as a symbol of oppressing the North.

전주지도

全州地圖 | Map of Jeonju

18세기 | 149.5×90.0cm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보물 1586호

영조 대 조경표가 건립되기 이전의 전주 모습으로 전주 고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성의 안팎으로 뻗어선 민가, 진전 주변의 수목과 새들, 만개한 복사꽃까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화사한 봄날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회화식 지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이다.

全州地圖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조선 | 목판본 | 35.7×21.4cm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12)에 완성 편찬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1530년 중종이 이행(李荇) 등에게 명하여 증수한 우리나라의 지리서이다. 위 책은 전라도 편(권 33)으로 전라도에 이어 전주부가 실려 있는데, 전주 건치연혁에 통일 후 신문왕 때 완산주를 설치하고 경덕왕 때 전주로 개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는 경덕왕 16년(757년)에 완산에서 전주로 개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경덕왕 15년(756)에 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의 3대 도시 전주

전주는 조선 제일의 곡창 지대 전라도의 수부로 물산이 풍요롭기가 한양을 방불케 하였다. 『호구총수』에 등재된 정조 13년(1789)의 전주부 호구戶口는 총 20,947호에, 72,505명이었다. 전주가 호수로는 한양, 평양에 이어 3번째이고, 인구수는 한양, 평양, 의주, 충주에 이어 5번째이다. 전주부성의 건물들은 관아를 제외하고 대개 초가집이었으며, 성안에는 주로 행정을 담당한 이속들이 살았고 민들은 성 밖에 주로 살았다.

“호남은 우리나라 남쪽의 울타리로 산천의 경계가 뛰어나고 물산이 풍요로워 온 나라가 먹고 입는 자원의 절반을 호남에 의지하고 있다”

— 매천 황현 梅泉 黃玹 —

Jeonju, a major city of Joseon

Jeonju was almost as prosperous as Hanyang(the capital of Joseon), it was the capital of Jeollado, and contained the greatest granary region within Honam. In the 13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1789) it was recorded that there were 20, 947 houses and 72, 505 people inhabiting the Jeonju area according to official documentation, 〈The total number of houses and families〉. This made Jeonju the third largest city in regard to the number of actual houses, after Hanyang and Pyeongyang. In terms of population Jeonju was the fifth largest, after Hanyang, Pyeongyang, Uiju, and Choongju. Apart from the government offices within Jeonju's Castle, the buildings were generally thatched cottages. The officials charged with administrative tasks, mainly lived inside the castle while those lower in status lived outside of the walls.

『호구총수』에 등재된 1789년(정조13) 인구 7만 이상의 군현

구 분	한 양	평 양	전 주	의 주	상 주	경 주	충 주	합 흥
호 수	43,929호	31,566호	20,947호	19,995호	18,667호	18,151호	17,809호	12,076호
인구수	189,153명	107,592명	72,505명	89,970명	70,497명	71,956명	87,331명	71,18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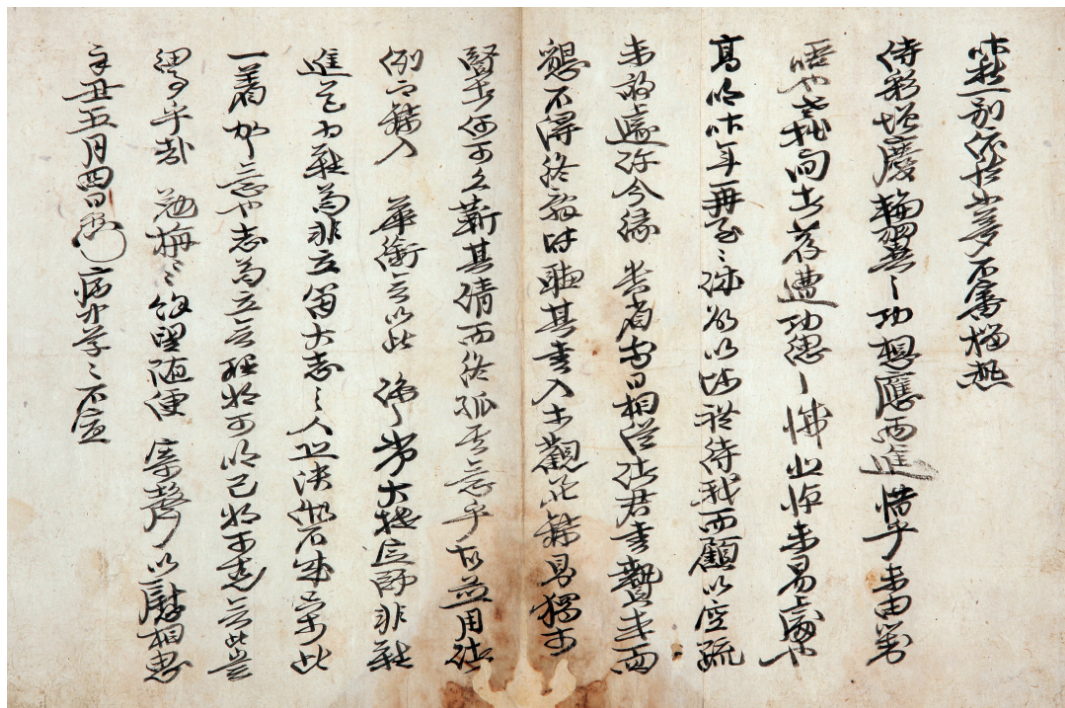


남문 밖 시장

南門市場 | A Market in the Suburbs of the Southern Gate, Jeonju

1900년 전후 | 『사진으로 본 서문교회 100년』(서문교회, 1994)

남문시장은 2일장으로 보통 '남박장'이라고 불리는데 전라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다. 이 사진은 전주교 동편쪽의 시장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멀리 승암산(중바위, 치명자산)이 보인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가득한 사진 우편(전주천 좌안, 천 건너편)은 반석리로 전주교대 앞이며, 사진 좌편은 향교가 있는 교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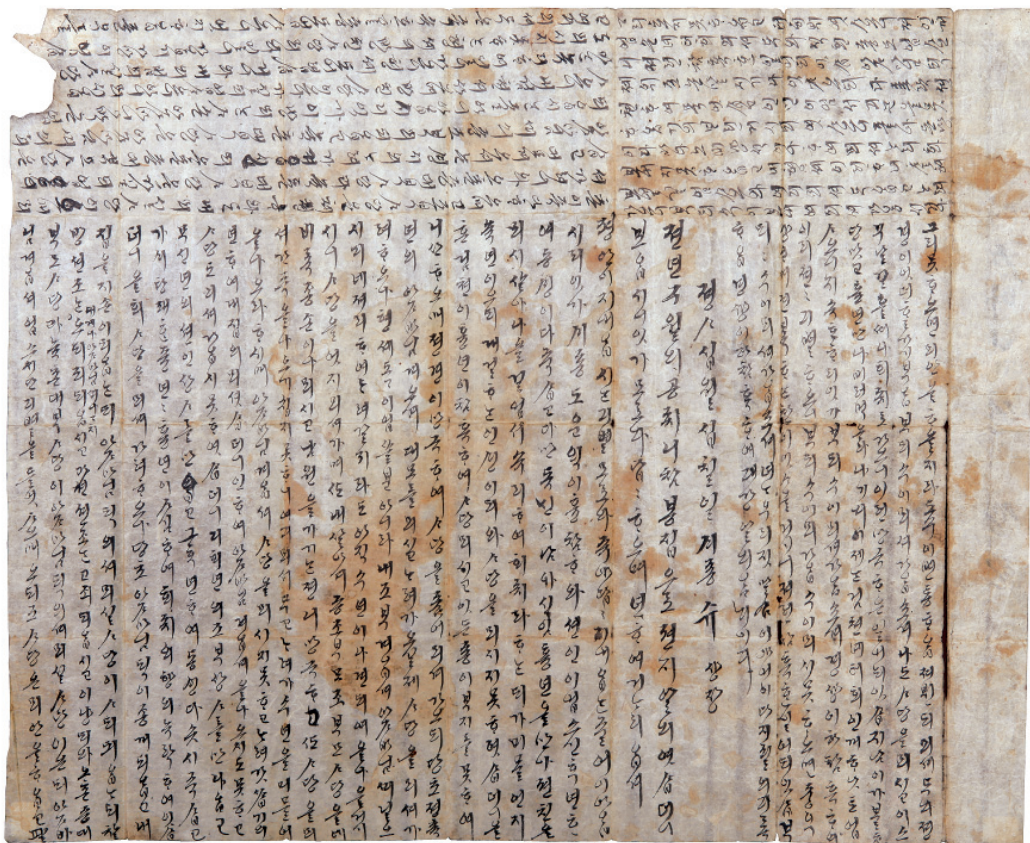


간재 전우의 편지

良齋 田愚 書簡 | Ganjae Jeon U's Letter

1901년 | 23.5×37cm

간재 전우(1841~1922)는 전주 서문 밖 청석리 출생으로 조선 말 호남 최고의 유학자일 뿐만 아니라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그는 말년에 계화도에 들어가 제자를 양성하는 등 수많은 유학자들을 길러냈다. 이 편지는 자신을 스승으로 모시려는 상대방의 간곡한 뜻을 어렵게 받아주면서 쓴 것으로 스승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道)에 나아감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국문 편지

書簡 | A Hangul Letter by I Su's Wife to Deceased I Wi's Wife

1737년(영조13) | 40×49.5cm | 전라북도유형문화재 103호 | 이춘재 기탁

경기도 금천에 살던 전주 이씨 고림군과 종친이 황해도 해주로 옮겨가 살면서 남원에 사는 고(故) 이위의 처 해주 오씨에게 보낸 편지이다. 가세가 몰락해 사당을 모실 수 없고 또 종가에서 사당을 모시는 것이 마땅하니 하루라도 빨리 사당을 모셔가라는 내용이다.

문화예술을 선도한 “예향”

전주는 전라감영이 소재했던 호남문화의 중심이다. 전주는 조선 후기 대사습놀이(大舍習놀이)가 열렸던 소리의 고장이며, 예부터 음식문화가 발전했던 맛의 고장이다. 전주는 가장 질 좋은 종이를 만들었던 한지의 본가(本家)이며, 완판본(完板本)이라는 이름으로 한양과 함께 출판문화를 주도했던 기록문화의 도시이다. 또한 창암 이삼만을 비롯해 기라성 같은 서화가들을 배출한 곳이 전주이다. 이처럼 전주는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소리·음식·한지·출판·서화 등의 문화예술을 꽃 피워 맛과 멋의 예향(藝鄕)으로서 조선의 문화예술을 선도하였다.

A city of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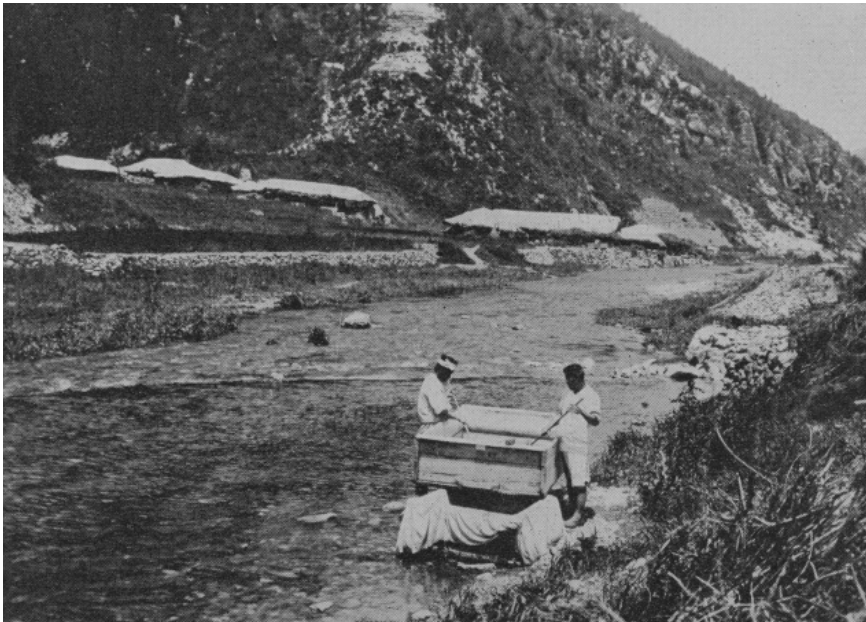
Jeonju is the home of Sori(Korean narrative song) and also it has hosted the 'Daesaseupnori'(Sori Festival). It has had a famous reputation for its culinary expertise. Jeonju is also the place where Hanji originated. Jeonju also boasted the best quality paper, and it led the way in document making and publications with Hanyang by using the 'Wanpan Edition' printing system. As well as all of these attributes, Jeonju has produced a plethora of artists, calligraphers and painters including Chang-Am Lee, Sam&-man. There was no doubt that Jeonju was the epicenter of cultural progression in the Joseon dynasty. The arts really had a chance to flourish during this time, this being mainly due to the thriving prosperity of the economy.

전주한지와 부채

全州韓紙·扇 | Korean Paper and Fan

전주는 한지韓紙의 본가이다. 우리 종이, 한지는 기록용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용품을 만드는 재료로 넓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한지의 주 생산지가 전라도이고 그 중심이 전주이다. 조선 초의 『경국대전』에 실린 지장紙匠 수를 보면, 전주와 남원이 각각 2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주는 이러한 질 좋은 한지를 토대로 양질의 많은 부채를 생산하였다. 전주부채는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품으로 전라감영에 부채를 생산하는 매우 큰 규모의 선자청扇子廳이 있었다. 부채를 만드는 장인들은 지금의 서학동, 인후동 등에 거주하였다.



전주한지 뜨기

全州韓紙制作 | Shaping Jeonju Hanji, Korean Paper

1930년경 | 『일본지리대개-조선편』 (1930)

전주한지를 뜨는 장면으로 사진 옆에 전주에서 태지(苔紙)를 뜨고 있는 모습이라고 주어져 있다.



색실 상자

絲函 | Thread Case | 조선 | 49×50cm

한지로 만든 생활공예품으로, 색색이 수실을 넣어두고 쓰던 색실 상자이다. 여러 개의 작은 서랍과 윗면에 칸이 나뉘어져 있어 많은 양의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정리 상자로 길상문양을 이용한 화려한 색의 배합이 뛰어나다.



옥조각 황칠선

合竹扇 | Okjogak Hwangchilseon, *Dendropanax morbifera* fans carved in a gem

현대 | 82×46cm | 故 이기동 기증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0호(선자장)였던 이기동 선생이 제작한 부채이다. 이기동 선생은 2007년 평생 공을 들여 만든 합죽선 47점을 기증하였다.

완판본

完板本 | Wanpan Edition

전주에서 간행한 책을 한양의 경판본에 대비해 완판본이라고 한다. 완판의 ‘완’은 완산을 말한다. 조선시대 완산, 즉 전주는 한양과 함께 최고의 출판 도시였다고 할 수 있다. 『춘향전』을 비롯한 많은 한글 고소설과 사서삼경四書三經 등 많은 고문헌들이 전주에서 간행되었다.

현재 전라감영 책판 5,059판(도유형문화재 204호)이 남아 있다. 타도와 달리 전라감영의 목판이 이렇게 많이 보존된 것은 1899년 전라감사 조한국趙漢國이 동학농민혁명 후 흩어져 있던 감영목판을 모아 전주향교에 보관토록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가서포 간행 ‘대봉전’

大鳳傳 | Daebongiyeon, Autobiography of Daebong, Printed in Jeonju

1916년 | 25×18cm | 전주 다가서포 간행

전주 다가정 다가서포(多佳書舖)에서 간행한 방각본(판매용 책)이다. 작자·연대 미상의 한글 고전소설로 남성 주인공뿐 아니라 여성 주인공의 활약을 두드러지게 나타냄으로써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여성도 남성과 대등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라감영 간행 '동의보감'

東醫寶鑑 | Donguibogam

1814년(순조14) | 목판본 | 34.3×21cm | 간기(刊記) '완영중간(完營重刊)'

전라감영에서 간행한 동의보감이다.



전라감영 목판 '동의보감'

全羅監營木版 東醫寶鑑

HeoJun's Donguibogam, Printed with Engraved

Woodblock by the Jeolla Provincial Government

조선 후기 | 25×58cm | 전주향교

허준(許浚)이 1613년(광해군5)에 저술한 동의보감을 양각한 전라감영 목판이다.



전라감영 간행 '명의록'

全羅監營刊行 明義錄 | Myeonguirok Printed by the Jeolla Provincial Government in the Joseon Dynasty

1777년(정조1) | 목판본 | 33×22cm | 간기(刊記) '완영신간(完營新刊)'

정조 즉위 후 왕세손 시질 대리정정을 반대한 홍인한·정후겸 등을 역적으로 사사하고 정조를 옹위한 홍국영·정민시·서명선의 충절을 선양한 정치적 처분이 정당함을 밝힌 책이다.

서화

書畵 | Painting and Calligraphic works

전주는 양반의 도시로 선비정신을 토대로 시서화詩書畵를 겸비한 뛰어난 서화가들이 활동하였던 곳이다. 조선 후기 3대 명필로 꼽히는 창암 이삼만(1770~1847)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호남삼절로 많은 제자를 길러낸 김제 의 석정 이정직(1841~1910), 포도 그림을 잘 그렸던 군산의 화가 최석환(1808~?), 어진을 비롯해 초상화로 저명한 채용신(1850~1941) 등 또한 전주·전북 서화사의 중심 인물들이다. 한편 타도 출신들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전주로 이주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화가 고암 이용로, 묵로 이용우 등도 한때 전주에서 활동하였다.



창암 이삼만 ‘견아여동遣鷺與洞’

蒼巖李三晩書 | Handwriting of Changam I Sam-man | 조선후기 | 30×99cm

창암 이삼만(1770~1847)은 전주 출신으로 한양의 추사 김정희, 평양의 눌인 조광진과 함께 조선 후기 3대 명필로 꼽힌다. 전주 교동에서 태어나 중년에 상관 공기골에서 살았다. 초서를 잘 썼으며, 그의 글씨체를 마치 물 흐르듯 유려하다고 하여 유수체(流水體)라고 하였다. 이 름을 삼만(三晩)이라고 한 것은 가난하여 배움이 늦고, 친구 사귀이 늦었으며, 결혼 또한 늦어진 까닭에서였다고 전한다.

민화 '어해도'

民畫 魚蟹圖 | Eohaedo, Folk Painting Drawing Fish, Shellfish and Crab

시대 미상 | 26.3×84.4cm | 故 김철순 기증

김철순 선생이 2002년에 민화 319점을 기증하였다.

이 어해도는 그 중 하나이다.



소리

說唱 | Korean narrative song

전주를 “소리의 고장”, “소리의 발상지”, “귀명창의 동네” 라고들 한다. 그만큼 전주와 소리는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전라도는 판소리의 산실이었으며, 그 중심지가 전주였다. 전주 통인通人들의 축제였던 전주대사습놀이는 그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전주 출신 권삼득(1771~1841)은 정조·순조 대 8명창의 하나로 양반의 후예인 비가비로 이름이 높다. 판소리는 2003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제1회 전국대사습대회 포스터

第1回 全國大私習大會 海報 | Jeonju Traditional Korean Narrative Song Festival

1975년 | 77.5×51.5cm |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대사습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민속음악경연대회로, 전주에서 조선 후기 숙종 대 이후 처음 열렸으며 한말 이후 중단되었다가 1975년 부활되어 첫대회가 열렸다. 제1회 대사습대회 판소리 부문에서故 오정숙 명창이 장원을 하였다.

음식

飲食 | 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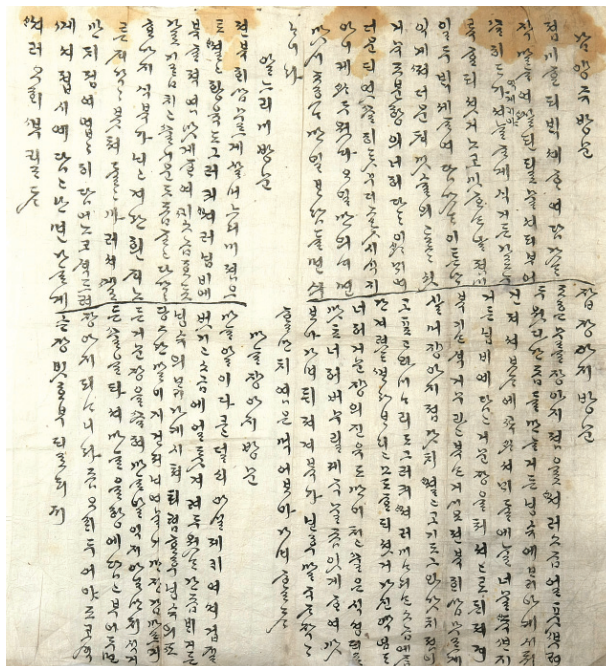
전주·전북은 넓은 바다와 강과 들이 어우러진 지리적 특성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음식 재료를 바탕으로 음식문화가 발달하여 예부터 맛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곧 전주의 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정식 등이다. 전주의 음식이 뛰어났던 것은 전라도의 수부로 물산이 집결되고 전라감영의 소재지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전주팔미^{全州八味}는 파라시, 열무, 녹두묵, 서초, 애호박, 모자, 게, 무를 말하며, 여기에 콩나물과 미나리를 더하면 전주 10미가 된다.

전주 4불여^{全州 四不如}

벼슬아치가 아전만 못하고, 아전이 기생만 못하고, 기생이 소리만 못하고, 소리가 음식만 못하다.

官不如吏 吏不如妓 妓不如聲 聲不如食

출처: 한자속담사전



한글 음식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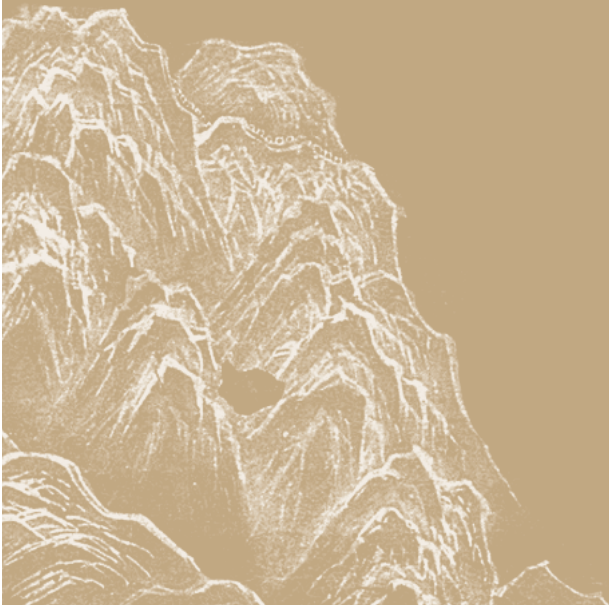
飲食方文 | Food Recipes in Korean

조선 | 36×39.5cm

가양주, 장아찌 등을 만드는 방법을 한글로 써놓은 것이다.

도판목록

List of Plates



11 몸돌
石核
Stone Core
전주시 송천동
구석기시대
14cm

12 동검 거꾸집
銅劍鎔范
Dagger Mold
완주군 갈동
청동기
길이 33.1cm
국립전주박물관

14 짧은 목 항아리
短頸壺
Short-necked Jar
백제
높이 30.3cm

두귀달린 항아리

兩耳附壺
Jar with Two Lugs
백제
높이 21.0cm

15 경복사 암기와
景福寺平瓦
Roof-end Tile of Gyeongbok-temple
완주군 경복사지
조선
우측 기와 길이 17.0cm
전북대박물관

17 토기유개합
土器有蓋盒
Lidded Bowl, Earthenware
전주시 만성동
통일신라
높이 9.6cm
국립전주박물관

20 견훤고성(동고산성) 성벽 복문지
甄萱古城 城壁
The Walls of Gyeonhwon Fortress (Donggosanseong)

견훤고성(상성) 전경

甄萱古城(上城) 全景
A Panorama of Gyeonhwon Fortress

21 '전주성' 글자가 새겨진 기와
全州城銘文瓦
Tiles engraved with the word 'Jeonju Fortress'
전주동고산성
후백제
암막새 길이 29cm, 수막새 지름 15.8cm
국립전주박물관

24 충익공 만육 최선생 신도비문
忠翼公晩六崔先生神道碑文
The Rubbed Copy of the Scholar Chungikgong Manyuk
Sindobi
1852년(철종3)
30.9×21.1cm

27 태조어진
太祖御眞
The Portrait of King Taejo
1872년(고종9)
220×151cm
국보 317호
어진박물관(경기전)

28 경기전 정전
慶基殿正殿
Main Hall, Gyeonggijeon
보물 1578호

29 운룡문 암막새
雲龍文平瓦當
A Roof-end Tile with Patterns of Dragon and Clouds
조선 말
25×30cm
전주대학교박물관

30 선원계보기략
璿源系譜記略
Geneology of the Royal Family of the Joseon Dynasty
1905년(광무9)
목판본
22.3×33cm

31 열성어필
列聖御筆
Album of calligraphy by Successive Kings of the Joseon
Dynasty
조선 후기
41×29cm

32 완문
完文
An Wanmun, Certification of the Government
1862년(철종3)
34×554cm

34 전라감영 선화당
全羅監營 宣化堂
Seonhwadang in Jeolla Gamyeong, the Office of the Provincial
Governor

35 전라감사 임용장
全羅監司任用狀
A Royal Writ of the Appointment to the Governor of the Jeolla
Province
1682년(숙종8)
48.5×74cm

-
- 36 **전라감사와 육방, 통인들**
 全羅監司 六房 通人
 A Governor of Jeolla Province with his Petty Functionaries of Six Chambers
 국사편찬위원회
-
- 37 **도내관안**
 道內官案
 A Register of the Various Kinds of Officials in Jeolla Province
 1818년(순조18)
 필사본
 19.9×308.6cm
-
- 38 **전라감영 주조 상평통보**
 全羅監營鑄造 常平通寶
 Coins Casted at the Jeolla Provincial Government
 조선 후기
 지름 3.5cm
 계명대박물관
-
- 39 **전주부성 축성록(축성계초)**
 全州府城築城錄(築城啓草)
 Fortification Record of Jeonju Castle
 1734년(영조10)
 32×27cm
 풍양조씨자효회
-
- 40 **전주부성도**
 全州府城圖
 Map of Jeonju in Joseon Dynasty
 529×170cm
-
- 41 **풍남문**
 豐南門
 Pungnammun Gate
 보물 308호
-
- 42 **전주부성**
 全州府城
 Jeonju Fortress
-
- 45 **진안 죽도**
 鎭安竹島
 Jukdo, Jinan
-
- 47 **호남절의록**
 湖南節義錄
 Record of Honorable Martyrs of the Honam District at the National Cris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1799년(정조23)
 목판본 5책
 21×31.5cm

-
- 48 **코 영수증**
 鼻請取狀
 Receipt of 3,369 Noses Cut off from Korean Soldiers by the Japanese
 1597년(선조30)
 90×45cm
 국립진주박물관
-
- 50 **태조실록(전주사고본)**
 太祖實錄(全州史庫本)
 The Annals of King Taejo in the Joseon Dynasty (The Jeonju History Archive)
 1445년(세종27)
 필사본 13책
 54.1×31.5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보 151호
 세계기록문화유산
-
- 51 **조선왕조실록(전주사고본 복본)**
 朝鮮王朝實錄(複本)
 The Annals of Joseon Dynasty(Replica)
-
- 52 **전주사고**
 全州史庫
 The Jeonju History Archive
-
- 53 **무주 적상산사고**
 茂朱 赤裳山史庫
 The History Archive of Mt. Jeoksang, Muju
 일제강점기
 9.1×14.1cm
-
- 55 **사발통문**
 沙鉢通文
 Sabalongmun, a round robin
 1893년(고종30)
 30×42.5cm
 복제
-
- 56 **대정 임명장**
 大正任命狀
 The appointment certificate of Daejeong
 1894년(고종31)
 24×40cm
-
- 59 **전주지도**
 全州地圖
 Map of Jeonju
 18세기
 149.5×90.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보물 1586호

- 60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조선
목판본
35,7×21,4cm
-
- 62 **남문 밖 시장**
南門市場
A Market in the Suburbs of the Southern Gate, Jeonju
1900년 전후
『사진으로 본 서문교회 100년』(서문교회, 1994)
-
- 63 **간재 전우의 편지**
良齋田愚書簡
Ganjae Jeon U's Letter
1901년
23,5×37cm
-
- 64 **국문 편지**
書簡
A Hangul Letter by I Su's Wife to Deceased I Wi's Wife
1737년(영조13)
40×49,5cm
전라북도유형문화재 103호
이춘재 기탁
-
- 66 **전주한지 뜨기**
全州韓紙制作
Shaping Jeonju Hanji, Korean Paper
1930년경
『일본지리대계-조선편』(1930)
-
- 67 **색실 상자**
絲函
Thread Case
조선
49×50cm
-
- 68 **옥조각 황칠선**
合竹扇
Okjogak Hwangchilseon, Dendropanax moribifera fans carved in a gem
현대
82×46cm
故 이기동 기증
-
- 69 **다가서포 간행 '대봉전'**
大鳳傳
Daebongjeon, Autobiography of Daebong, Printed in Jeonju
1916년
25×18cm
전주 다가서포 간행

- 70 **전라감영 간행 '동의보감'**
東醫寶鑑
Donguibogam
1814년(순조14)
목판본
34,3×21cm
-
- 전라감영 목판 '동의보감'**
全羅監營木版 東醫寶鑑
HeoJun's Donguibogam, Printed with Engraved Woodblock by the Jeolla Provincial Government
-
- 71 **전라감영 간행 '명의록'**
全羅監營刊行 明義錄
Myeonguirok Printed by the Jeolla Provincial Government in the Joseon Dynasty
1777년(정조1)
목판본
33×22cm
-
- 72 **창암 이삼만 '견아여동' 遣齋與洞**
蒼巖李三晩書
Handwriting of Changam I Sam-man
조선 후기
30×99cm
-
- 73 **민화 '어해도'**
民畵 魚蟹圖
Eohaedo, Folk Painting Drawing Fish, Shellfish and Crab
시대 미상
26,3×84,4cm
故 김철순 기증
-
- 74 **제1회 전국대사습대회 포스터**
第1回 全國大私習大會 海報
Jeonju Traditional Korean Narrative Song Festival
1975년
77,5×51,5cm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
- 75 **한글 음식방문**
飲食方文
Food Recipes in Korean
조선
36×39,5cm